

청소년의 성(性)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주지혁*, 김형일*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Exploration of relationship among Korean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after exposure: focused on PLS path modeling analysis

Jihyuk Joo*, Hyung-il Kim*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Far East University*

요 약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 구조를 PLS 구조모형 분석으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음란물 노출에 남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과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충동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취급되었던 변인들을 성정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물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에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 음란물, 성정향성, 음란물 노출, 성충동, 성행동

Abstract Though adolescents have the skillful ability to use internet and use it extensively, they have experienced sexually less than adults and are hard to have the right viewpoint toward sexuality. Because of these adolescents' characteristics, internet pornography cause them serious troubles with their sexual behavior. Based on the viewpoint, this research explores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ir sexual orientation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the sexual drive and behavior with PLS path modeling analysis. In result, androcentric and pornography-friendly sexual orientation have an influence on the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in turn, the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ffect the sexual drive and behavior directly and sexual behavior indirectly mediated by the driv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fact that sexual orientations, reconceptualized from previous researches's dependent variables, predict the exposure to internet pro-pornographic and is to identify a popular myth indirectly that the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stimulates sexual drive to cause behavior, in turn leads to sex crimes finally.

Key Words : Internet pornography, Sexual orientation, Exposure to pornography, Sexual drive and behavior

Received 1 May 2013, Revised 20 May 2013
Accepted 20 June 2013
Corresponding Author: Hyung-il Kim(Far East University)
Email: john815@kd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수용자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 마다 판도라 상자(Pandora's Box)를 마주하게 된다. 그 상자 속에는 뉴미디어가 보다 진보된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과 뉴미디어가 파생시킬 지도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는 염려가 혼재해있다. 특히 성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칠 뉴미디어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해왔다. 인터넷이 대중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망들이 역시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전망 중 바람직하지 못한 전망은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의 부작용이다.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의 부작용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 중에서 후자에 주목한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리분별이 취약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교내에서 성행위를 모방한 사건[1], 인터넷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는 성행위 장면을 모방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한 중학생이 음란물의 장면을 모방하여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3] 등은 인터넷 음란물의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4], 전세계의 인터넷 사이트의 12%와 인터넷 다운로드의 35%가 음란물과 관련이 있고, 인터넷 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색되는 단어가 섹스(sex)이다. 또 다른 언론은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 현상을 보고하면서 전세계 웹사이트의 60%가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80%가 성인용 잡지와 라이프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5].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요 콘텐츠는 야한 사진, 야한 소설, 야한 동영상 음란성 대화, 화상 몰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 7].

인터넷 음란물은 매우 간단하게 익명으로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8]. 이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 이용자들은 성적 만족을 쉽게 얻는다[7].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성인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해서 우려한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광범

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다[9].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성(sexuality)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표현물(sexual content)을 찾는 경향이 있다[10].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음란물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기가 어렵다[11].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행태의 특징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 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다. 즉 중·고교생들의 성 정향성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야기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문헌검토 및 가설

2.1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쉽게 몰입하고 중독된다. 이는 음란물을 접촉하는데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구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자극적인 음란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12]. 인터넷 음란물 탐닉은 청소년의 생활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일상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영민[13]이 청소년 19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9.3%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학부모 및 현직교사를 포함한 4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한 연구[14]에서 인터넷 음란 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84.4%였고,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학생은 35.8%로 나타났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도 전체 69.2%의 학생들이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남학생(89.8%)이 여학생(48.6%)에 비

해 월등히 높았다. 충북의 농촌지역 고등학생 16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를 조사한 연구[16]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7%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47.7%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했고 초등학교 때 이미 접촉한 학생도 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남녀 중고생 8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성 관련 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성 갈등(성에 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과 성비행이 증가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성 관련 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19]이 중고생 1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청소년 1.3%가 심각한 중증 중독 상태에 있고 2.3%는 중등도 중독 상태에 있으며 4.2%는 경미한 중독 상태에 있어 전체 청소년의 7.8%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정도에 있어서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실업계 고등학생이며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2.2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선행변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청소년 연구, 사회 및 발달 심리학 등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격 특성 및 미디어 이용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0]. 한편 미디어 실행 모형(Media Practice Model)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미디어 콘텐츠 선택은 인구통계적 속성, 발달적 특성, 사회맥락적 속성 등과 깊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21, 22, 23].

1) 이 모형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과정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의 민속지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개발되었고 '정체성-선택-상호작용-응용'의 순환과정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은 다른 매스미디어 효과 연구들의 접근방법과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이 모형에서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은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이 선택하는 매체 및 장르, 내용에 대한 상호작용 및 거부 등에 있어서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미디어 이용과 효과의 과정이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상호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미디어 효과에 있어서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현재 혹은 잠재적 자아(혹은 정체성)는 미디어 선택,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7]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에서는 대체로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20, 24, 25]. 김유정[2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요인인 성적 호기심과 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디어 이용 특성 측면에서는 타 미디어에서의 음란물 이용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명일[7]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성격 특성 중 감각추구 성향(sensation-seeking)과 미디어 이용 특성 중 다른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상준[19]에 따르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청소년이 남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과다 접촉하는(중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성식 [27]은 개인성향 중 감흥추구성향, 음란물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컴퓨터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향성도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정향성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학습되고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기존 연구[26, 27, 28]에서 성정향성을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 종속변인으로서 성의식 또는 성태도로 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물 노출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음란물 노출이 성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이라는 가정에서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남성중심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란물에 대한 허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행태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이후 나타나는 성 관련 행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 미디어 음란물이 보여주는 장면들은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음란물 노출에 따른 청소년들의 후속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성태도 또는 인식, 성충동, 성행동, 성적 공격성, 성비행 또는 범죄 등의 종속변인에 대해 음란물 노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변인정과 정용국[29]의 남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음란물 노출이 높은 대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도구적 성인식과 성비행 시행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26]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은 일반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여성 관련 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성폭력, 혼전 성경험, 성적 허용도, 성의 도구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여성 관련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인식하거나 강간을 관대하게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노출로 인해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어 성 충동을 일으키고 성폭력과 같은 성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즉 김덕모[30]의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접했을 때, 성적 충동을 느낀 비율이 38.5%, 따라 하고 싶어하는 모방욕구가 26.2%, 성 추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15.3%로 나타났다. 이성식[31]은 사람들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인터넷 음란물 노출로 자극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평소에 성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남자 중학생의 성충동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청소년들이 남녀 모두에 있어서 접촉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동채[32]의 보고에 따르면, 음란영상물을 본 후 남학생의 55%와 여학생의 18%가 성적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김은경[33]에 의하면 성적 충동 해소를 위해 남학생의 21%는 자위행위를 하

거나 실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김혜옥 등[34]은 컴퓨터 음란물에 노출된 남자 중학생의 82.5%가 성적 욕구와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는 포르노에 노출된 후 이성에게 강제적인 성행동을 시도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29재인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인숙과 조주연[35]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에 따른 성행동은 자위행위, 성관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경험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은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성도덕을 약화시키며, 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지식과 사고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행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발달시켜 키스나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36].

위와 같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충동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성충동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자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경험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교를 방문하여 응답자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협조를 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언론홍보학을 전공하는 3, 4학년 6명의 조사원들이 설문의 취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4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3인의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교는 설문 배포와 수거의 편의를 위해 조사원의 출신 중·고교를 선정하였다. 설문내용이 청소년에게 비교적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문조사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소규모의 동아리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학급 단위별 조사를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11월 19일에서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88명의 응답내용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남학생은 287명(74%) 여학생은 101명(26%)이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80명(20.6%) 고등학생이 308명(79.45%)으로 구성되었다. 학년구성은 고3(51.3%), 고2(20.65), 중3(16%), 고1(6.2%), 중2(4.4%), 중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변인은 성 정향성(개방적 성 정향성, 남성중심적 성 정향성, 음란물에 대한 허용적 성 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노출 후 행태(성충동, 성행동) 등이다.

3.2.1 성정향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성정향성 척도들은 기존의 연구 [7, 18, 26, 28]에서 사용했던 성태도 또는 성의식 관련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와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들이 토론을 통해 기존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성태도나 성의식이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정향성이 음란물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하는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민감한 내용으로서 측정도구가 직접적인 내용을 질문하거나 복잡하면 타당성 있는 응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 척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모든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구성개념(construct)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방적 성정향성(open sexual orientation)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O1)',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O2)', '남자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O3)'로 측정하였다. 이 중 혼전순결 관련 두 항목(O2, O3)은 역 코딩하였다.
- ② 남성중심적 성정향성(androcentric sexual orientation)은

'여자의 가치는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적인가에 달려 있다(A1)',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를 좋아한다(A2)', '여자들은 내심 자신들을 거칠게 다루는 남자를 좋아한다(A3)'로 측정하였다.

- ③ 음란물에 대한 허용적 성정향성(pro-pornographic sexual orientation)은 '음란물은 성을 왜곡시킨다(PP1)', '음란물은 성범죄를 조장·방조한다(PP2)', '음란물은 기존의 성질서와 성도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해로운 것이다(PP3)'로 측정하였다.

3.2.2 인터넷 음란물 노출

인터넷 음란물 노출(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은 양과 빈도를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 음란물을 보니까(E1)'에 대하여 5점 척도('접촉을 안 했다'(1점)에서 '매우 자주 접촉했다'(5점))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접촉 소요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음란물을 한 번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E2)'에 대하여 6점 척도('15분 미만'(1점), '15분~30분 미만'(2점), '30분~1시간 미만'(3점), '1시간~2시간 미만'(4점), '2시간~3시간 미만'(5점), '3시간 이상'(6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 음란물 접촉 회수(E3)'를 측정하였다.

3.2.3 인터넷 음란물 노출 후 행태

인터넷 음란물 노출 후 행태는 기존 연구[18, 27, 29, 31, 35, 37]에서 사용했던 성충동과 성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충동(sexual drive)은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SD1)', '인터넷 음란물이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SD2)', '본 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SD3)', '나도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SD4)'로 측정하였다.
- ② 성행동(sexual behavior)은 인터넷 음란물 보고 난 후 경험한 성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구체적 측정항목은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SB1)', '키스나 스킨십을 해 본적이 있다(SB2)',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SB3)' 이다.

3.3 통계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PLS (Partial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PLS는 잔차 변량의 최소화(by minimizing residual variance)를 통해 측정 모형(구성개념에 대한 항목 적재치)과 구조모형(구성개념 사이의 회귀경로)을 추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선형 다중회귀분석을 통합한 분석방법이다[38, 39, 40].

PLS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의 방법 중 하나로 LISREL이나 AMOS처럼 공분산분석(covariance analysis)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들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PLS는 주요인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구조방정식방법의 제한으로 알려져 있는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에 대한 엄격한 가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즉 PLS는 공분산을 이용하지 않고 측정오차와 잠재변수들 사이의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경로계수들의 예측력이 극대화되도록 추정한다. 그리고 PLS는 비교적 적은 수의 자료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구조방정식방법들이 분석을 위해 최소 200개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비해, PLS는 가장 복잡한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의 10배 정도의 최소 표본수가 필요하다[39, 40, 41]. 또 PLS는 공분산구조모형에서는 엄격하게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선행연구가 없어도 새로운 탐색적인 인과관계모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고[42], 확인적 연구와 탐색적 연구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과 이론을 검증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38, 39, 40, 43].

이 연구의 분석에는 여러 가지 PLS 분석소프트웨어 중에서 함부르크대학에서 자바 언어(Java-based)를 기반으로 만든 SmartPLS[44]를 이용했다. SmartPLS는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분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4. 결과

4.1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martPLS의 Calculate 탭에서 PLS Algorithm을 실행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와 구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분석하였다.

<Table 1>은 PLS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타당도(Composite Reliability)는 최소 기준값인 0.7보다 모두 높게 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성개념들의 크론바흐의 알파(α)값이 0.7 이상으로서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적 성정향성은 알파값이 최소 신뢰도 기준값인 0.6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방적 성정향성 측정도구 중 신뢰도값을 저해하고 있는 측정항목을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Table 1> Result of PL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VE	Composite Reliability	R Square	Cronbach's Alpha
Open	0.469	0.722		0.540
Androcentric	0.695	0.872		0.779
Pro-pornographic	0.714	0.882		0.801
Exposure	0.654	0.849	0.284	0.740
Sexual drive	0.768	0.930	0.308	0.899
Sexual behavior	0.617	0.828	0.338	0.711

<Table 2>는 수정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정된 모형에서는 모든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0.7이상으로 측정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에서는 개방적 성정향성 측정항목 중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O1)'를 탈락시켜 신뢰도를 개선했다.

<Table 2> Modified result of PL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VE	Composite Reliability	R Square	Cronbach's Alpha
Open	0.814	0.897		0.776
Androcentric	0.695	0.872		0.779
Pro-pornographic	0.714	0.882		0.801
Exposure	0.654	0.849	0.251	0.740
Sexual drive	0.768	0.930	0.308	0.899
Sexual behavior	0.617	0.828	0.338	0.7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치와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분석에 있어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6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41].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항목들이 0.6이상의 적재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인 AVE는 하나의 잠재변인과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항목들이 공유하고 있는 분산의 크기를 말한다. 즉 AVE가 클수록 잠재변인이 설명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의 분산이 크다는 것이므로 수렴타당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에 있어서 AVE가 0.5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있다[38, 39, 41]. 따라서 본 연구의 잠재변인들의 AVE가 모두 0.6이상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loadings

	Open (O)	Androcentric (M)	Pro-pornographic (TP)	Exposure (E)	Sexual drive (SD)	Sexual behavior (SB)
O2	0.876					
O3	0.929					
A1		0.796				
A2		0.893				
A3		0.804				
PP1			0.801			
PP2			0.877			
PP3			0.854			
E1				0.834		
E2				0.714		
E3				0.862		
SD1					0.795	
SD2					0.910	
SD3					0.900	
SD4					0.895	
SB1						0.854
SB2						0.689
SB3						0.804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각 잠재변인의 AVE 제곱근의 값을 비교하였다. 어떤 잠재변인의 AVE 제곱근 값이 그 잠재변인과 다른 잠재변인들 간의 모든 상관계수들 보다 클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즉, 한 잠재변인 내에서 측

정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된다[41, 45]. <Table 4>에서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AVE 제곱근 값을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AVE제곱근 값이 인접한 종과 횡의 다른 상관계수들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Correlations within latent variables and Square roots of AVE

	Open (O)	Androcentric (M)	Pro-pornographic (TP)	Exposure (E)	Sexual drive (SD)	Sexual behavior (SB)
Open	0.902					
Androcentric	0.074	0.834				
Pro-pornographic	-0.129	-0.171	0.845			
Exposure	0.169	0.386	-0.364	0.809		
Sexual drive	0.088	0.417	-0.232	0.555	0.877	
Sexual behavior	0.077	0.299	-0.296	0.500	0.525	0.785

*대각선은 잠재변인의 AVE의 제곱근 값임

4.2 가설검정

가설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martPL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SmartPLS가 제공하는 디폴트(default) 값인 표본수(samples) 500으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s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Standard Error (STERR)	T Statistics (O/STERR)
Open -> Exposure	0.107	0.115	0.099	0.099	1.077
Androcentric -> Exposure	0.328	0.333	0.096	0.096	3.400
Pro-pornographic -> Exposure	-0.294	-0.307	0.091	0.091	3.249

Exposure -> Sexual drive	0.555	0.557	0.081	0.081	6.825
Exposure -> Sexual behavior	0.302	0.303	0.094	0.094	3.210
Sexual Drive -> Sexual behavior	0.357	0.367	0.105	0.105	3.393

구체적으로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1에서 개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하였다. 가설2는 남성주의적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주의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0.328, t=3.400, p<0.001$).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3에서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beta=-0.294, t=3.249, p<0.01$) 가설3은 지지되었다. 3가지 성정향성 잠재변인에 의해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약 25% 설명되었다($R^2=0.251$). 가설4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가설4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0.555, t=6.825, p<0.001$), 지지되었다. 성충동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의하여 약 31%($R^2=0.308$) 설명되었다.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5 역시 유의하였다($\beta=0.302, t=3.210, p<0.01$). 따라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6에서 성충동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6 또한 유의한 것으로 밝혀져($\beta=0.357, t=3.393, p<0.001$) 지지되었다. 성행동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충동에 의해서 약 34%($R^2=0.338$)의 설명력을 보였다.

5. 결론 및 논의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 마다 뉴미디어가 가져다 줄 희망적 전망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혼재해있다. 특히 성인들은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 미칠 뉴미디어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해왔다. 인터넷의 등장과 보급 과정에서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망들이 나타났는데, 이 중 바람직하지 못한 전망은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넷의 이러한 콘텐츠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련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인터넷 음란물에 주목하는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리분별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인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음란물은 매우 간단하게 익명으로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성적 만족을 얻고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해서 우려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 관련 콘텐츠를 찾는 경향이 있다. 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형태 사이의 인과관계의 구조를 탐색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주요하게 취급되었던 성의식 및 성태도를 성정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음란물 노출의 독립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성격으로 인해 PLS 구조방정식분석을 채택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성정향성 중에서 남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물 허용적 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음란물 노출이 성태도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결과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학습되고 형성되어 평소에 인터넷 음란물 이용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성정향성이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예측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혔던 성격특성, 미디어 이용 특성, 발달적 특성, 사회맥락적 속성뿐만 아니라 성정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정향성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습되고 배양된

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이 올바른 성정향성을 갖도록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둘째, 성충동에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27, 35, 37]이다. 즉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면 강한 호기심과 성충동을 경험한다는 홍성례와 정여주 [37]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평소에 성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27], 음란물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성적 호기심과 성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보고[35]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성행동에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청소년들이 접촉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비행을 더욱 저지른다는 이성식[27]의 결과 및 이인숙과 조주연[35]의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응답자가 자위행위, 성관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경험과 같은 성행동이 두드러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넷째, 성충동 역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을 매개로 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결국 성폭력이나 성비행 같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검증해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평소 성정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연구에서 개발해왔던 성태도나 정의식을 차용, 재개념화하여 성정향성을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선행변인으로 성정향성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거쳐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성정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와 개념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의 평소 성정향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척도 개발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성충동과 성행동 사이의 조절변인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실제 성충동이 성행동으

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함으로써 청소년 교육 장면에 적실성(的實性) 있는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Hankyoreh, "Elementary School boys' sex mimicry of internet pornography," 2003. 7. 4.
- [2] Chosunilbo, "Youth to be unprotected exposure to pornography," 2008. 5. 1.
- [3] Hankookilbo, "Middle school student to commit sex crime by imitating internet pornography," 2004. 3. 25.
- [4] Sports Seoul, "'Sexuality is money?' Pornographic industry in statistics," 2007. 7. 31.
- [5] Maeil Business News, "You are a lewd man in internet," 2006. 3. 28.
- [6] Jin-Sung Jung and Dong-Uk Cho, "A survey of internet sexual sites and blocking method,"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mprehensive Academy Conference Proceeding*, Vol. 1, No. 2, pp. 474-480, 2003.
- [7] Myung-il Choi,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2, pp. 49-69, 2009.
- [8] J. Peter and P. M.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and 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 *Journal of Communication*, 56, pp. 639-660, 2006.
- [9] M. Madden and L. Rainie, *America's online pursuits: The changing picture of who's online and what they do*. Washington DC: Th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3.
- [10] R. C. Savin-Williams and L. M. Diamond, "Sex," in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R. M. Lerner, Ed., Hoboken, NJ: Wiley, 2004, pp. 189-231.
- [11] A. C. Huston, E. A. Wartella, and E. Donnerstein, *Measuring the Effects of Sexual Content in the Media: A Report to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Menlo Park, CA: Kaiser Family Foundation, 1998.

- [12] Geejun Eo, "Causes and measures toward adolescents' addiction to obscene materials: Reality and measures," Paper presented at the 27th 21st Century Youth Forum,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pp. 33-48, 2002.
- [13] Young-min Yun, "Youth's use of internet: Exploration of explanatory model," Paper at the Symposium on Youth and Internet, 2000.
- [14]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Study on the reality of frequency of access to internet obscene material, child and youth's use, and parent and teacher's measures," 2001.
- [15] Hyewon Kim and Haegyong Lee, "Analyses on the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s by students' gender, school-type, and living a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1, pp. 247-272, 2002.
- [16] Eun-sil Kim, bong-Han Kim, and Min-Wook Kil, "Study on contacts to cyber obscene materials of high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vol. 5, No. 5, pp. 63-70, 2010.
- [17] Myung Hwa, Lee,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and knowledge influencing sexual conflict through the obscene material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1998.
- [18] Hye-Won Kim,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2, pp. 309-328, 2003.
- [19] Saong-June Lee,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addiction to cybersex,"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5, pp. 342-364, 2003.
- [20] J. Peter and P. M.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Vol. 33, No. 2, pp. 178-204, 2006b.
- [21] J. D. Brown, "Adolescents' sexual media die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27, No. 2 Supplement. 1, pp. 35-40, 2000.
- [22] J. R. Steele, "Teenage sexuality and media practice: Factoring in the influences of family, friends, and school," *Journal of Sex Research*, vol. 36, No. 4, pp. 331-341, 1999.
- [23] J. R. Steele and J. D. Brown, "Adolescent room culture: Studying media 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24, pp. 551-576, 1995.
- [24] G. S. Mesch,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2, No. 3, pp. 601-618, 2009.
- [25] Hae Gyoung Lee, "Comparison of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cting variables in the obscene, and obscene chatting addi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2, pp. 165-190, 2002.
- [26] Yoojung Kim,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fter exposing internet explicit materials associated with personal facto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4, No. 6, pp. 45-84, 2010.
- [27] Seong-Sik Lee, "The effects of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juvenile sexual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y Review*, Vol. 14, No. 4, pp. 61-114, 2003.
- [28] Jong-In Lim and In-Sook Choi, "Relationship between access to lewd internet contents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awareness of sex,"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4 (December), pp. 117-139, 2003.
- [29] Injung Byun and Yongkuk Chung, "Processing sex crime news: The effects of the sensational value of news story and the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s," *Media & Art Research*, Vol. 7, No. 3, pp. 1-33, 2012.
- [30] Dug-Mo Kim, "How to use a toxic substance of internet in the young gener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3, No. 3, pp. 5-50, 2003.
- [31] Seong-Sik Lee, "The conditioning effects of internet pornography on youth's sexua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2, pp.

- 22-45, 2004.
- [32] Dong-Chae Chung, "Survey of KBS, MBS, and SBS PD's opinion on mimicry of violent and lascivious TV programs," The office of Rep. Dong-Chae Chung: The National Assembly, 1998.
- [33] Eun-Kyong Kim, "A study on effects of sexual explicitness in mass medi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8.
- [34] Hae Ok Kim, Hae Sook Shon, Soo Kyung Park, Sang Hwa Um, and Jin Ho Chun, "A study on the contact to lascivious computer programs and related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Pusan and Kimhae area," *Inje Medical Journal*, Vol. 20, No. 1, pp. 447-454, 1999.
- [35] Inn Sook Lee and Ju Yeon Cho,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0, No. 2, pp. 59-68, 2007.
- [36] Jae-Hong Ko and Young-Dan Ji, "The roles of several mediators and moderators between pornography and rape myt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0, No. 1, pp. 87-105, 2002.
- [37] Sung-Rye Hong and Yeo-Joo Jung,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behavior in male and female freshma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0, No. 3, pp. 69-82, 2012.
- [38] D. Gefen and D. W. Straub, "Consumer trust in B2C e-Commerce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presence: Experiments in e-Products and e-Services," *Omega*, vol. 32, No. 6, pp. 407-424, 2004.
- [39] M. Hajli, "An integrated model for E-commerce adoption at the customer level with the impact of social commer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Management*, vol. Special Issue, No. 1, pp. 77-97, 2012.
- [40] M. Hajli, "Social Commerce Adoption Model," in *The UK Academy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University of Oxford, UK, 2012.
- [41] Deokran Hwang, Young Chan Choe, Miyoung Kim & Junghoon Moon, "The impact of shopping motives and emotions on online shopping behavior: Shopping-experienced customer group vs. potential shopping customer grou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22, No. 2, pp. 347-375, 2007.
- [42] Joong In Kim, "Reflective indicator vs. formative indicator: Theoretical discussion, empirical comparison, and practical usefulness,"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Vol. 27 (December), pp. 199-226, 2012.
- [43] W. W. Chin,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vol. 22, No. 1, pp. vii-xvi, 1998.
- [44] C. M. Ringle, S. W. W. and A. Will, "SmartPLS 2.0," Hamburg: Universitat Hamburg, 2006.
- [45] D. Gefen, D. W. Straub, and M. Boudreau,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 of the AIS*, vol. 1, No. 7, pp. 1-78, 2000.

주 지 혁(Joo, Jihyuk)



론 홍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뉴미디어, 수용자
- E-Mail : hyukjoo@kdu.ac.kr

- 1996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문학사)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과 (문학석사)
- 2003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과 (문학박사, 언론학 전공)
- 2003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언론 홍보학과 교수

김 형 일(Kim, Hyung-il)



론 홍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경영, 미디어정책
- E-Mail : john815@kdu.ac.kr

- 1990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문학사)
- 1995년 8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과 (문학박사, 언론학 전공)
- 2002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언론 홍보학과 교수